

“누구보다 투표 의지 강한 거동 불편자들 도울 수 있어 뿌듯”

장애인·노인 등 투표장 이동 도운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휠체어를 타거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 에겐 집 밖으로 나서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다. 택시·콜밴 등 이동 수단을 원하는 시 간에 마음대로 탈 수 있는 것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장거리를 이동해야 한다거나 꼭 갈 데가 아니라면 섣뜻 몸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15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콜택시 를 이용한 주민들은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투표장을 찾았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후 보를 선출하는데 꼭 참여하겠다며 며칠 전 부터 예약까지 하고 투표장을 찾은 주민들 이다.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15일,

차량서 줄면서 투표 열정 장애인 가족 3명 함께 투표 광주 78명 센터 차량 이용 “투표하도록 도와줘 감사”

투표장을 찾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20대 의 콜밴 차량을 선거지원차량으로 배치했 고 평소 등록된 장애인들만 이용하던 운영 방식을 바꿔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 약자 등에게도 예약을 받아 투표장까지 무 료로 태워주는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날 이들을 투표장으로 실어나른 기사

들을 통해 이들에게 투표하는 이유를 들어 봤다.

12년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장 애인 운송 업무를 맡고 있다는 노수진 (52)씨는 이날 오후 5시까지 6건의 운송 지원 서비스를 요청받았다.

노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최근에는 장애 를 가진 주민들의 이동이 줄어 ‘콜’이 평소 에 비해 절반까지 줄었는데, 오늘은 코로 나19 이전 만큼 ‘콜’이 많았다”고 했다. 몸 이 불편한 한 번 밖으로 나가는 게 ‘큰 일’ 인 장애인의 경우 먼 거리를 가야할때만 센터를 이용하는 데, 집에서 가까운 투표 소를 가겠다고 ‘콜’을 부른 주민들이 많았 다는 것이다.

노씨는 “이들 이동약자들이 투표를 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노씨는 “오전에 많이 투표를 하는데, 오 늘은 늦은 오후에도 선거도우미와 함께 투 표장을 찾는 장애인 손님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15일 하룻동안 비엔날레 주차장과 광주 시 북구 아파트 단지 등에서 ‘대기’하며 7 차례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투표장으로 옮겨준 양해관(55)씨는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동사무소에 문의해 ‘콜’을 불러 투표소까지 이동했다”면서 “피곤하다며 차 량에서 꾸벅꾸벅 졸면서도 투표해야 한다 며 차에 탄 게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양씨는 또 “할머니는 선거철에만 지역구 에서 얼굴을 비추던 후보들은 당선 후에는

지역구에서 마주친 적이 없다며 불만스러 워했다”고 했다.

이날 12건의 ‘콜’을 받아 투표소를 오갔 던 박기웅(58)씨는 “투표를 해야했는데 갈 방법이 마땅치않아 고민하고 있다가 교 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덕분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다”고 했다.

박씨는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주민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비닐장갑을 끼 고 투표를 하려다 접자를 읽지 못해 선거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한 표를 행사한 게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박주혁(54)씨는 오늘 8차례 이동약자들 을 실어나르면서 적극적인 투표 참여 의지 를 확인했다고 했다.

박씨는 특히 “불편한 몸을 움직여 투표장 으로 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려면 투표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 가족의 막 내가 이번엔 만18세가 돼 가족 3명 모두가 한번에 이동해 투표장으로 가는 장면이 보 기 좋았다”고 기억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이날 78명의 이 동약자들을 투표장으로 실어나르는 선거지 원 서비스를 진행했다.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최연주 원장은 “몸이 불편해 소중한 한 표를 포기 하거나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 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재기발랄 투표 인증샷... ‘놀이문화’로 자리잡아

‘사회적 거리두기 1m’ 샷 반려동물과 함께 ‘한컷’ 비닐장갑 위 도장 찍기도

코로나19도 시민들의 ‘즐거움 놀이’를 막지 못했다.

투표소마다 이어진 행렬처럼, 페이스 북·카카오톡·트위터 등에도 ‘투표 인증 샷’의 행렬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15일 광주·전남 유권자들은 ‘투표 완료’ 를 알리는 수많은 인증샷을 올리거나 서로 교환하면서 ‘정치 개혁’, ‘사회 변화’ 등의 소박한 꿈을 담았다. 아이와 함께하는 부모, 나이 드신 부모님과 모처럼 가족 나들이를 나왔다는 장년층 유권자, 또래 친구들끼리 생애 첫 투표를 했다며 저마다 재기 넘치

는 아이디어를 뽐내며 ‘놀이’를 즐겼다. 투 표 인증샷은, 이제 젊은층을 넘어 가족 단 위로까지 확산하면서 새로운 선거 풍속도 로 자리 잡았다.

우선,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 해 투표 뒤 손등에 도장을 찍는 행위를 자 제해달라는 당부 때문에 ‘투표인증샷’ 애 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인증샷’을 올린 누 리꾼들이 많았다.

앱을 실행하면 우측 상단에 ‘아름다운 선거’라는 문구가 붙은 화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투표 인증 도장도 원 하는 크기로 제작해 사진에 집어넣을 수 있다.

정부의 손등 투표도장 자체 권고에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투표소앞을 찾은 유권자 들은 이 앱으로 투표 인증샷을 만들어 사회

관계망서비스(SNS)를 가득 채웠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투표장 바닥에 1~2m 간격으로 붙은 발자국 모양 의 대기선을 배경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 m’ 샷을 올리는 유권자들도 많았다. 투표 확인증을 발급받아 투표 인증 사진을 올리 는가 하면, 반려동물과 함께 투표소를 찾 아 인증샷을 찍어 올린 시민들도 눈길을 끌었다.

대학생 주모(24)씨는 “투표장에 가는 길에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 산책도 시키고 인증샷도 함께 찍었다”고 말했다.

정부 자체 권고에도, 손등 투표도장 인 증샷은 여전히 많다. 손등 도장을 자제하는 대신, 비닐장갑 위에 도장을 찍어 올리는 경우도 눈에 띄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5일 투표를 마친 광주·전남 유권자들의 투표인증샷 행렬이 잇따랐다. 왼쪽부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인증샷, 사회적 거리두기 1m샷, 비닐장갑 손등 도장, 반려견과 투표장에 동반해 찍은 투표인증샷 등 다양한 인증샷이 SNS를 가득 채웠다. <독자 제공>



1m 간격 투표 행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광주시 서구 상무중학교에 마련된 상무2동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1m 간격으로 줄을 길게 서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회적 거리두기’로 광주 범죄 발생 줄어

최근 3년 평균보다 8.8% 감소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외출·모임 등을 자제 하면서 범죄 발생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난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112신고 건수는 7만 4997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2월 3일~3월 31일) 평균 신고 건수보다 8.8% (7207건) 줄었고 살인·강도·절도 등 중 오범죄의 신고 건수는 13.8% 감소했다. 납치·감금 감소율은 57%, 가정폭력은 23%, 아동학대는 17%, 절도는 3.3% 줄

었다. 반면, 성폭력은 14%, 데이트폭력은 2.9% 늘었다.

올해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

범죄 휘둘러 징역형...“위험한 물건 아냐” 항소했다가 기각

범죄발

○...‘위험한 물건’인 냄 비를 휘둘러 징역형을 선 고받은 40대남성이 ‘냄비 는 위험한 물건이 아닌데 1심이 잘못 판단 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위 험한 물건이 맞다’고 판시.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 기)는 지난해 5월 “3개월만 살고 나가라” 는 A(36)씨 말에 화가 나 A씨 얼굴을 냄 비로 수차례 때려 코뼈 골절 등 3주 간 치

19 관련 신고는 총 231건 접수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도 꾸준히 발생하는 생계형 범죄나 기타 우발 범죄에 대해 빈틈없는 치안 활 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